



건강한 밥상! 행복한 세상! 우리밀이 만들어 갑니다!

존경하는 회원님들께,

농번기로 바쁘신 와중에 밀에 발생한 붉은곰팡이병으로 고충이 되실 거라 사료되어 안내문을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겨울과 초봄 가뭄으로 시름 했던 농지에 4월 초 이상 저온, 잦은 비와 이에 따른 일조량 부족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밀에 붉은곰팡이병이 발생하였습니다.

병증상은 주로 이삭에서 나타나며, 병든 이삭은 처음에는 연갈색으로 변하고 점차 마름증상이 나타나면서 나중에는 낱알에 분홍색의 포자덩어리가 생기고 심하면 이삭이 여물지 못하여 쭉정이가 되기도 합니다.

※ 붉은곰팡이가 분비하는 독소로 인해 병에 걸린 맥류를 사람이 먹게 되면 구토, 설사 등의 중독 증상이 나타나고, 가축에게 먹이게 되면 사료섭취 감소, 체중감소 등의 문제를 일으켜, 사람뿐만이 아닌, 가축에게도 식용으로 쓰일 수 없습니다.

가장 큰 피해가 있는 전라남도는 이번 피해를 농어업재해 대책법에 따른 농작물 재해로 인정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하였으며 재해로 인정되면 농약대 52만원, 대파대 26만6천원 지원을 예상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에 따라 재해복구비 지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재해복구비가 지원되도록 각 기관과 협력하여 관철하고 현재 일부지역만 선정되어 있는 밀 재해보험 가입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재해 발생시 생산농민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 재생산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2018년 밀 재해보험 해당지역 : 충남(천안, 예산), 전북(익산, 김제), 전남(해남), 경남(사천), 광주광역시

생산농가에서는 재배 포장을 잘 살펴보고 병 의심증상이 있으면 지역농업 기술센터 등을 방문해 발병 여부를 확인한 후 적용약제로 신속히 방제해 주시기 바라며, 붉은곰팡이병이 발생되지 않은 밀도 수확 이후 병원균이 계속 자랄 수 있으므로 수확 즉시 건조시켜 병든 씨알 확산 등 2차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시 희망찬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1. 맥류 붉은곰팡이병 발생 언론 기사 1부.
2. 전남 함평군 밀 붉은곰팡이병 사진 1부. 끝.



사단
법인

국산밀산업협회

출처 연합뉴스('18.05.29)

"가뭄 넘겼더니"...젖은 비에 전남 양파·맥류 30% 이상 '병해'

지난겨울과 초봄 가뭄으로 시름 했던 농지에 이번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 막대한 병해가 발생했다.

양파, 보리와 밀 재배면적의 3분의 1에 잎마름병, 맥류 붉은 곰팡이병이 발생해 농사를 망치게 됐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중만생종 양파 재배면적 9천627ha 가운데 3천186ha(33.1%)에서 잎마름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별 발생면적은 주산지인 무안이 1천747ha로 가장 많고 신안 520ha, 함평 500ha, 장흥 100ha, 영광 69ha 등이다.

보리 1만2천958ha, 밀 2천614ha 등 맥류 재배면적 1만5천572ha 중 5천70ha(32.6%)에서는 붉은 곰팡이병이 발생했다.

품종별로 쌀보리 2천856ha, 밀 1천830ha, 맥주보리 384ha 등이다.

시·군별로는 1천620ha, 보성 1천500ha, 해남 1천ha, 함평 950ha에서 피해를 봤다.

붉은 곰팡이병은 과거에도 발생했지만, 양파 잎마름병이 이번처럼 넓게 퍼진 사례는 매우 드물다.

전남도는 양파와 보리 모두 월동기 한파, 4월 초 이상 저온, 젖은 비와 이에 따른 일조량 부족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에서는 지난 1월부터 5월 중순까지 강우량이 439mm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279mm이나 많았다.

일조 시간은 평균 178.6시간으로 전년보다 46.7시간, 평년보다 61.5시간이나 적었다.

전남도는 이번 피해를 농어업재해 대책법에 따른 농작물 재해로 인정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다.

재해로 인정되면 양과는 농약대 ha당 168만원, 대과(대체 과종)대 41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맥류에는 농약대 52만원, 대과대 26만6천원 지원을 전남도는 예상했다.

전종화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에 따라 재해복구비 지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농민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재해 인정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상원 기자

첨부2

전라남도 함평군 밀 붉은곰팡이병 사진(참고)

■ 전라남도 2,614ha 파종면적 중 1,830ha 피해

■ 전남 함평군 밀 사진('18.05.30(수))

